

자살예방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26)

-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 동향에 따라 자살예방 강화 대책 강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6일(금) 오전 최근 자살사망 증가 동향에 따라 정신의학, 사회복지, 언론, 경제·사회, 예방의학, 심리, 응급의학, 간호 등 각계 전문가와 최근 자살 동향·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게시된 2023년 사망원인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770명으로 2022년 대비 864명 증가(6.7%)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019명→9,626명, 6.7%↑)과 여성(3,887명→4,144명, 6.6%↑)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서 매달 말 사망원인통계 잠정치 게시(사망원인통계 中 외인사 - 고의적 자해(자살)에서 자살사망자 수 게시), 매년 9월 말~10월 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확정에 따라 자살사망자 수도 함께 확정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316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1월 987명) 대비 329명(33.3%)이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00명(43.5%), 여성 29명(9.7%)이 증가하였다.

2024년 2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174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2월 1,062명) 대비 112명(10.5%)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8명(11.3%), 여성 24명(8.5%)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23.4, 총리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발표) 등 자살예방·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주요내용)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경제위기군 대상자 맞춤형 정책 등 자살예방을 위한 쏠주기 포괄

** (주요내용) (예방)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치료 체계)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시 집중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인식개선) 매년 학생·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 동향에 따라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 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자살 고위험군 안부 묻기 등 관리를 강화하였고, 삶의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받는 법을 알지 못해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방문 시 부채·일자리·법률·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자살사망자 증감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자살 사망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우기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044-202-3891)

☐ 추진 배경

-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4월 26일(금) 오전 7시 30분, 서울
- (참석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 예방협회 및 각계 전문가 총 20명 내외
- (주요 내용) 최근 자살 동향·원인 분석 및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정신의학, 사회복지, 언론, 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7:30~07:35('5)	• 인사 말씀	정신건강정책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07:35~07:55('20)	[발표] • 최신 자살 사망 동향 분석 • 자살예방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07:55~08:55('60)	• 영역별 제언	참석자 전체
08:55~09:00('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정신건강정책관